

가족여가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Leisure Behavior

오 상 훈* · 고 미 영**
(Oh, Sang-Hoon) · (Ko, Mi-Young)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실증분석
- V. 결론

I. 서 론

여가는 삶의 고립된 영역이 아니라 사회환경과 일상생활의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서 여가활동의 주된 사회환경은 가족이다. 가정은 가족구성원들이 TV시청, 독서, 취미생활, 휴식 등을 취하는 장소로서, 친척 및 친구들과 이루어지는 사회적 접촉의 대부분은 가정과의 연관하에서 이루어지고, 가족의 생활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가족은 여가생활의 단위로서 여가활동의 장(場)으로서 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은 오락 및 휴식의 기능 외에도 가족의 이해와 행복을 증가시키고, 소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

속감과 일체감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오스너와 맨시니(Orthner & Mancini, 1990) 등의 연구에서 가족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족간의 관계와 생활만족을 증가시키고, 어린이와 성인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의 결속력과 단합을 유지하는 것은 여가시간의 활용을 통해 가능하며, 현대가정의 기능으로서 바람직한 여가생활의 정착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가생활은 가정 속에서는 절실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결혼에 의한 가족의 형성과 자녀의 출생, 자녀의 분가 및 탈양육기,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등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및 가족의 요구와 자원이 모두 변화한다는 점에서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족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소비자행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시된다.

가족생활주기에 관한 연구에서 가계의 소득, 소비, 저축유형 및 관광행동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여가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현재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여가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는 현재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제주지역에서 관광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방문객 중심의 관광연구는 많이 있으나 이에 비해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관광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관광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가활동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여가활동은 사회의 구성단위인 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라서 동일하지도 않고, 또한 각 생활주기별로 달라져야 할 필요성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 가족여가행동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제주시 지역의 가족에 적합한 가족생활주기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가족여가행동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경험연구를 병행하였고, 이를 분석·검증하기 위해 제주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공간적으로 제주시, 시간적으로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9월까지 1년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관광여가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행동 중 가족여가행동을 중심으로 하였고, 가족구성원 중 주부가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2.1 가족생활주기

2.1.1 개념

가족생활주기는 영국의 경제학자 라운트리(Rowntree)가 주장한 이래, 1930년대 소로킨, 짐머만, 갈핀(Sorokin, Zimmernam, and Galpin)에 의해 연구되어졌고, 1948년 힐과 듀발(Hill and Duvall)이 가족을 각 가족구성원의 개별적 생활주기의 집합으로 취급하여 가족을 서로가 의존하는 관계로서 이해하고 발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유영주, 2000)

듀발(Duvall, 1982)은 가족생활주기를 “가족의 형성으로 시작되어 해체될 때까지 가족의 생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특징적인 단계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족생활주기는 결혼으로 시작되어 자녀의 출산으로 그 규모가 증가되고, 자녀가 출가해서 그들의 가족을 형성하면서 축소되고, 부부 중의 어느 하나가 사망하게 되면서 해체된다.

가족생활주기는 가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간관계나 역할 기대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탐구하는 가족 발달적 접근의 한 형태로, 가족발달에 대한 예견력이 있어서 가족의 초기단계로부터 후기단계에서 무엇이 일어날지를 예견하는 인과적 분석에 사용된다. 그리하여 가족생활주기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앞으로써 가족구성, 가족의 상대적 수입수준, 가족의 소비유형, 가족의 여가활동 유형, 부부의 결혼만족도, 가족갈등의 발생 가능한 영역들, 부모-자녀관계의 특성 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가족생활주기는 결혼관계, 가족구성원들의 연령, 가족의 규모, 가장의 취업여부 등의 여러 인구 통계적 특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복합변수이다. 이와 같이 각 가족들을 이들 복합변수를 토대로 해서 분류하게 되면 어느 한 변수만을 이용했을 때보다 그 가족의 행동특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렌싱과 키쉬(Lansing and Kish)는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연령보다는 개인이 가족생활주기 상의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생활주기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심리적 측면을 설명해주는 유용한 변수로서 중요하므로 연령보다는 가족생활주기를 독립변수로서 더욱 폭 넓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가족생활주기관 시간이 흐름에 따른 가족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가족이 형성되어 해체될 때까지 가족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일련의 특징적인 단계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2.1.2 분류기준

가족생활주기 단계의 분류기준은 학자들마다 다른데, 가족원들의 구성과 가족크기의 변화, 결혼지속 년 수, 만아이의 출산, 자녀의 연령 및 교육 제도상의 위치, 가장의 연령, 결혼상태, 배우자의 사망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가족생활주기의 구분은 핵가족을 기초로 결혼과 함께 재생산행위가 이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 후 자녀를 두지 않는 경우, 혼전 및 혼외 출산의 경우, 또는 복혼가족 등에서는 가족생활주기의 추정이 어렵게 된다. 즉, 가족생활주기는 일반적인 부부중심의 핵가족에서 그 가족이 어떻게 성장, 발전해 가느냐는 개념인 것이며, 그 단계의 구분 역시 관점에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에 관한 이론에서 비젤로우(Bigelow), 듀발(Duvall), 로저스(Rodgers), 글릭(Glick, 1977), 유영주(1984), 공세권(1985) 등이 대표적 연구자들이다. 각 학자들의 가족생활주기 분류에서 자녀출생 이전과 자녀의 독립 후를 각각 하나의 단계로 보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자녀출생 후부터 자녀독립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분류기준을 달리해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또한 위 학자들의 분류기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의 발달과정에서 모든 가정이 거치는 공통적인 진행과정인 혼인, 자녀출산, 자녀의 취학, 자녀의 분가, 은퇴, 배우자의 사망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무자녀 부부, 별거 내지 이혼으로 파괴된 가족, 확대가족, 만혼인 가족, 동거 부부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분류기준 시 제외하고 있어서 가정생활의 변화를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들이 수적으로 적은 경우 그것을 무시하거나, 이들을 전통적인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별도의 가족생활주기 단계를 설정하는 등의 대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가족생활주기를 인구통계학 관점에서 연구한 듀발(Duvall)과 유영주, 경영·경제학적 관점의 소비자행동 측면에서 분류한 웰즈와 구바(Wells and Guber), 머피와 스테플즈(Murphy and Staples)의 각각의 가족생활주기 단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가족생활주기 단계비교

연구자	Duvall (1957)	Wells & Gubar (1966)	Murphy & Staples (1979)	유영주 (1984)	본 연구 (2002)
분류 기준	첫 자녀 연령	막내자녀 직업	가장연령 자녀유무	첫 자녀의 교육상황	막내자녀 교육상황
가족생활주기 단계	1.신혼부부가족 2.자녀출산 및 영아기가족 3.유아기가족 4.아동기가족 5.청년기가족 6.독립기가족 7.중년기가족 8.노년기가족	1.독신기 2.신혼부부기 3.보금자리 I기 4.보금자리 II기 5.보금자리 III기 6.노부부 I기 7.노부부 II기 8.고독생존기 I기 9.고독생존기 II기	1.젊은독신기 2.무자녀신혼기 3.유자녀젊은부부 4.유자녀중년부부 5.의존자녀없는 중년부부 6.노부부 7.노년독신층	1.형성기 2.자녀출산 및 양육기 3.자녀교육기 4.자녀성년기 5.자녀결혼기 6.노년기	1.신혼부부기 2.자녀양육기 3.자녀교육기 4.자녀성년기 5.자녀결혼기 6.장·노년기 7.은퇴기

자료 : Duvall , Wells & Gubar, Murphy & Staples, 유영주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2.1.3 가족생활주기와 인간행동관계

가족생활주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족과 가족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족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변화는 종종 가족구성원들의 역할 변화로 인해 일어나게 된다. 즉, 가족구성원들의 역할변화는 가족의 규모, 가족구성원들의 성장과 경험, 구성원들의 요구, 가치, 인식, 흥미의 변화에 의해 야기된다.

신혼부부는 전형적으로 가구, 가전제품, 악세사리의 구입에 관심을 갖는다. 자녀가 생기기 이전, 신혼부부는 오락, 레크리에이션, 직업의 발전 등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녀가 생긴 이후에는 양육과 주택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된다. 가족생활주기가 이동함에 따라서, 구성원이 나이가 들고, 수입이 증가·감소함에 따라서 가족의 요구가 변화한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인간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생활주기와 소비자행동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가족의 가구 구매패턴과 가족생

활주기와 관련하여 밝혀졌다. 가족생활주기 초기단계의 젊은 가족일수록 가구를 구매할 때 스타일이나 미(美)보다는 감각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고, 가족생활주기 후기단계에서는 매력과 미관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밖에도 가구의 지출규모와 구성이 가족생활주기 단계와 체계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가족생활주기와 쇼핑행동 간에도 높은 상관성이 있다.

또한 가족생활주기와 식품소비에 관한 연구에서 주부들이 음식준비에 소요한 시간, 준비된 음식의 종류, 그리고 주부 자신의 음식선호 등을 조사해서 주부들의 목표 충족도를 측정 한 후 이를 토대로 가족생활주기를 6단계로 구분한 결과 각 단계와 식품소비 만족도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 구매행동, 지출패턴, 쇼핑행동, 식품소비 등 인간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족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근원적 환경으로 인간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체계론적 관점에 의하면, 가족 내의 구조가 변하면 가족구성원들의 위치, 역할, 기능이 변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가족구성원 개인의 행동도 변하게 된다. 즉, 개개인의 행동은 가족생활 주기의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2.2 여가행동

2.2.1 개념과 유형

여가는 개인이 가정, 노동 및 기타의 의무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 하에서 휴식, 기분전환, 자기개발 및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여가행동이란 여가시간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가행동은 동인(motivator)에 의하여 추진되는 행동이며, 인간의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예로 휴식, 기분전환, 자기개발, 사회적 성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여가행동은 동태적인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외적 환경요소와 개인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여가행동도 변화한다.

여가행동은 관광행동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관광이 시간, 장소, 비용의 제약을 많이 받는 데 비해 여가는 관광보다 이러한 제약을 훨씬 덜 받기 때문이다. 여가행동은 여가시간을 즐기는 가운데 일련의 단계를 밟아가는 하나의 과정(process)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라지와 프랭켄(Raaij and Franken)은 여가행동을 ①욕구, ②정보탐색, ③의사결정, ④여가참여, ⑤사후평가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안중수, 1993)

듀마즈디에르(Dumazedier)는 활동적인 측면에서, 여가를 일, 가족,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

개인이 휴식, 기분전환, 지식확대, 자발적 사회참여 및 자유로운 창조력의 발휘를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버거(Berger)도 여가를 활동의 한 형태로 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필요하고, 보상을 주는 일과는 대조되는 것이며, 자유시간에 수행되는 자발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Kelly & Godbey, 1999)

본 연구에서는 여가행동을 활동적인 측면에서 여가시간동안에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자유로운 상태 하에서 휴식, 기분전환, 자기개발 및 사회적 성취 등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가족여가활동이 생활주기 각 단계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가행동의 유형은 매우 광범위하며, 분류기준과 분류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가행동이 상호 유사한 내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 활동유형을 구분하는 분류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여가행동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분류되고 있는데, 로취(Loesch), 하비거스트(Havighurst), 폰스(Faunce), 듀마즈디에르(Dumazedier), 그라지아(Grazia)와 같이 여가행동이 양면성을 갖고 있음을 착안하여 여가행동의 유형을 이원적 차원에서 구분하였고, <표 2-2> 위의 분류들과는 달리 에퍼슨(Epperson, 1977), 스잘라이(Szali, 1972), 루트진(Lutzin, 1973), 오스너(Orthner, 1981)처럼 각각의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여가행동을 다차원적으로 분류하였다.<표 2-3>

<표 2-2> 여가행동의 이원적 구분

분류자	구 분		
로취	· 개인적-집단적 · 부업적-비부업적 · 지적-비지적	· 경쟁적-비경쟁적 · 고소비적-저소비적 · 육체적-비육체적	· 인간지향적-제품지향적 · 자아지향적-타인지향적 · 고도 위험적-저위험적
하비거스트	· 참가-관전 · 경쟁성-협동성 · 자기표현-도구성	· 참여탐색-노동의 자유 · 자아통합-역할분담 · 고독성-집합성	· 심심풀이-즐거움 · 창조성-비창조성 · 활동성-수동성
폰스	· 창조형-비창조형 · 자기지향형-타인봉사형	· 사교집단형-고독개인형 · 참여형-관객형	· 기분전환형-도피형 · 피로회복형-적극적활동형
듀마즈디에르	· 육체적-비육체적 · 지성적-비지성적	· 적극적-소극적 · 사교적-비사교적	· 심미적-비심미적 · 생산적-비생산적
그라지아	· 참여적-관객적 · 독립형-적극형	· 고독적-사교적 · 능동적-수동적	· 가정내적-가정외적 · 육내적-야외적

자료 : 김광득, 「여가와 현대사회」, 백산출판사, 2000, p.215.

〈표 2-3〉 여가활동분류기준 및 유형

학자	분류기준	여가활동유형	구체적인 예
에퍼슨 (Epperson)	참여유형	1.관람활동	· 스포츠, 경주, 영화, 전시회 등
		2.야외레크리에이션활동	· 전람회, 위락공원, 명승지 등
		3.개인·소집단활동	· 자전거, 스케이트, 골프 등
		4.기계적 스포츠활동	· 보트타기, 모터사이클 등
		5.클럽·리조트·별장활동	· 컨트리클럽, 건강스포츠 등
스잘라이 (Szali)	활동유형	1.준여가	· 신체회복활동, 종교활동 등
		2.수동적여가	· 음악감상, TV시청, 영화감상 등
		3.완전여가	· 관람, 오락, 사교활동, 스포츠
루트진 (Lutzin)	동기 및 표현형태	1.신체적 활동	· 스포츠, 게임, 댄스 등
		2.사교적 활동	· 피크닉, 파티, 클럽활동 등
		3.문화적 활동	· 미술, 음악, 연극, 민속 등
		4.자연적 활동	· 낚시, 사냥, 캠핑, 하이킹
		5.정신적 활동	· 독서, 창작
오스너 (Orthner)	타인과의 상호작용	1.개인활동	· 명상 등
		2.병행활동	· TV시청, 수집, 음악감상, 요리
		3.결합활동	· 축구, 캠핑, 카누 등
교통개발 연구원	여가 이용 행태	1. 관광활동	· 공원방문, 캠핑, 해외여행 등
		2. 취미 및 교양활동	· 영화관람, 교양강좌, 수집활동
		3. 스포츠활동	· 수영, 배드민턴, 조깅, 볼링 등
		4. 오락 및 기타활동	· TV시청, 사우나, 전자오락 등

자료: Epperson, Szali, Lutzin, Orthner,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연구자 재구성.

2.2.2 촉진요인

많은 요인들이 개인의 여가참여를 유발시키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고, 독특한 성격(personalities), 라이프 스타일, 목표(goals), 요구 등에 따라서도 다르다.

동기는 모든 행동을 유발시키는 추진력이며, 여가활동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잠재적 참여자가 여가참여의 예비적 단계를 거쳐야 할 경우, 그들은 처음에 개인적 동기형태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여가동기는 어떤 경우에는 지각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

의 여가결정초기에는 여가참여를 촉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드라이버와 브라운(Driver and Brown)은 개인이 여가에 참여하는 동기들을 조사하였는데, 자연을 즐김, 긴장완화, 소음과 혼잡으로부터 탈출, 야외학습, 공통된 가치의 공유, 가족과의 유대감 등 모두 17개의 동기들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주로 옥외 여가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인들의 여가동기를 연구한 하비거스트(Havinghurst)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보다는 개인의 심리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여가활동의 동기와 중요성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성인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은 개인의 성격(personality)과 사회계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연령과 성별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들의 주요 여가동기로 즐거움 추구, 업무로부터의 변화, 새로운 경험, 창조성, 성취, 친구들과의 접촉, 시간 보내기, 봉사 등을 들고 있다.

오스굿과 호우(Osgood and Howe)는 가족생활주기의 각기 다른 단계에 따른 개인의 여가활동유형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각 개인의 가족생활주기가 이동하면서 변화하는 여가동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가족구성원들이 어떤 이유로 가족여가활동에 참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족을 변화하는 동적인 집단으로 보고, 가족의 구조와 생활환경이 변화하면 가족구성원들의 여가활동 동기도 변화할 것이라고 보고, 각 생활주기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2.3 제약요인

어떤 특정한 여가활동에 대한 개인의 흥미와 참여정도는 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변수가 특정 여가활동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경우 이를 “제약요인(constraints)”이라고 한다. 제약요인은 “특정행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정의된다. (Godbey & Crawford, 1973) 많은 연구가들은 여가참여와 관련하여 제약보다는 “장애(barrier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장애요인”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활동의 선호와 참여 사이에서 방해하는 요인”으로 정의되는 반면에, 제약요인은 참여와 선호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제약과 관련된 연구는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서, 1987년 가족여가와 관련된 인간내적, 인간상호적, 구조적 장애요인에 대한 크라우포드(Crawford)와 굿베이(Godbey)의 연구로 본격화되었다. 이들은 제약을 어떤 활동에 대한 선호와 참여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보고, 여가선호가 존재할 경우 제약이 있으면 불참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제약이 없으면 참여가 일어난다고 했다.

잭슨(Jackson)은 여가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범주의 제약요인으로 선행적 제약요인(antecedent constraints)과 개재적 제약요인(intervening constraints)을 제시하였다. 에딩

턴 등의 연구(Edginton et al, 1995)에서는 사람들이 여가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10가지 요소들을 밝혀냈는데, 이러한 요소들로 태도적 제약요인, 정보차원 제약요인, 소비적 제약요인, 시간적 제약요인, 사회·문화적 제약요인, 경제적 제약요인, 건강상의 제약요인, 경험상의 제약요인, 여가가치와 기술상의 제약요인, 환경적 제약요인을 들고 있다.

결국 여가제약요인이란 개인의 여가행동을 “제한하는 힘”으로 경험되는 내적인 심리상태나 특성 또는 성격과 외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약요인은 여가선호와 여가참여의 결정적 요소로서가 아닌 선호와 참여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여가활동 제약요인은 가족생활주기의 단계에 속한 어느 한 개인에게서 형성될 수 있지만,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발달과업(developmental tasks) 및 가정환경과 관련된 독특한 생활구조와 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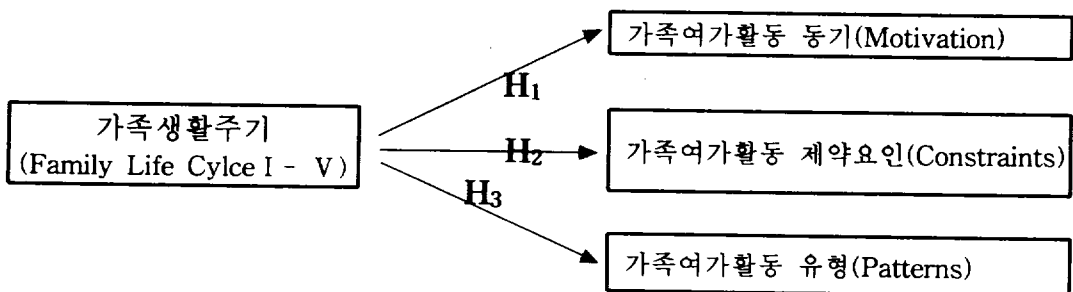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에 속한 구성원들의 가족여가활동을 제한하는 공통적인 제약요인이 무엇이며, 각 생활주기의 단계에 따라서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델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 구매행동, 지출패턴, 관광행동, 여가행동 등의 인간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가족여가활동의 동기, 제약요인, 유형도 각 생활주기의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 여가활동의 동기와 제약요인, 여가활동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델



3.2 가설설정

가족생활주기는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의 동기 및 참여도, 유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켈리(Kelly), 랜돈과 로칸더(Landon and Locander), 굿베이(Godbey), 오스굿과 호우(Osgood and Howe)등의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① 가설 I :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여가활동 동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② 가설 II :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여가활동 제약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③ 가설 III :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조사설계

본 연구에서 모집단(population)은 제주도 전체 157,563 가구 중 제주시 83,092 가구이며, 조사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가족구성원 중 기혼여성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기혼 여성이 가족생활주기와 관련하여 가족의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을 가장 잘 대변할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표본추출은 비확률표본추출방법(nonprobability) 중 편의표본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의 항목은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구성하였고, 각 항목의 측정은 서열척도와 명목척도, 등간(5점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였다.

설문유형은 폐쇄형 설문유형(closed-end questionnaire)으로 하였고, 설문지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게 만들어진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questionnaire survey)는 제주대학교 학생 7명을 조사원으로 선정하여 설문문항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사전에 교육시킨 후 2002년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15일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0.0 version을 이용하였다.

IV. 실증분석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은 연령, 학력, 직업, 자녀수, 막내자녀연령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특성들을 살펴보면 연령은 20대가 33명(13.0%), 30대가 89명(35.0%), 40대가 77명(30.3%), 50대 이상이 54명(21.2%)으로 구성되었고, 학력은 중졸이하가 17명(6.7%), 고졸이 91명(35.8%), 대졸이 139명(54.7%), 대학원졸 이상이 7명(2.8%)으로 대부분이 고졸이상의 학력이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36명(14.2%), 전문직이 16명(6.3%), 사무직·회사원이 20명(7.9%), 판매·서비스직이 67명(26.4%), 공무원이 52명(20.5%), 전업주부가 27명(10.6%), 기타가 36명(14.2%)이다. 자녀수를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인 기혼여성이 37명(16.6%), 자녀가 2명인 기혼여성이 114명(51.1%), 자녀가 3명인 기혼여성이 46명(20.6%), 자녀가 4명 이상인 기혼여성이 26명(11.7%)으로 평균 자녀수는 2.34명이다. 가족생활주기는 신혼부부기가 31명(12.2%), 자녀양육기가 75명(29.5%), 자녀교육기가 79명(31.1%), 자녀성년기가 43명(16.9%), 자녀결혼기가 26명(10.2%)이다.

4.2 가족여가활동 특성

가족여가활동 가운데 가장 많이 참여하는 활동은 TV시청으로 18.8%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족과의 외식가기, 산책, 드라이브, 가족과의 대화와 같은 여가활동에 주로 많이 참여하였다. 활동시기는 공휴일(23명, 9.1%)이나 방학·휴가(10, 3.1%) 때보다는 주로 평일(134명, 52.8%)과 주말(87명, 34.3%)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활동빈도에서는 대부분이 매일(80명, 31.5%) 참여하거나 일주일에 한번(65명, 25.6%), 일주일에 3-4번(64명, 25.2%)정도 참여하고 있었고, 일부는 한달에 1-2번(42명, 16.5%), 1년에 1-2번(3명, 1.2%)정도 참여하고 있었다. 가족여가활동에 지출하는 월평균 경비는 7-10만원(68명, 29.1%)정도 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20만원(64명, 27.4%), 4-6만원(49명, 20.9%), 1-3만원(27명, 11.5%), 20-40만원(16명, 6.8%), 50만원 이상(10명, 4.3%) 순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여가활동 시 의사결정은 기혼여성(68명, 26.8%)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전 가족(62명, 24.4%), 부부공동(52명, 20.5%), 자녀(46명, 18.1%)의 영향력도 비교적 컸지만, 남편(26명, 10.3%)의 영향력은 가장 적었다.

가족여가활동을 유형별로 분류했을 경우의 빈도수와 퍼센트는 <표 4-3>과 같다.

첫째, 가족여가활동을 가정내 여가활동과 가정외 여가활동으로 분류했을 경우 가정내 여가활동은 전체 비율의 43.3%, 가정외 여가활동은 56.7%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두 번

제로 옥내활동과 옥외활동으로 분류했을 경우 옥내활동은 전체 비율의 72.7%, 옥외활동은 27.3%이다. 세 번째의 유형에서 고소비적 여가활동은 30.5%, 저소비적 여가활동은 69.5%를 차지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에서는 육체적 활동이 22.3%, 비육체적 활동이 77.7%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 번째 유형에서는 취미 및 교양활동이 25.8%, 스포츠활동이 18.3%, 오락 및 교양활동이 55.9%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가정의 여가활동, 옥내활동, 저소비적 여가활동, 비육체적 활동, 오락 및 교양활동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

<표 4-1> 가족여가활동유형 빈도

여가활동유형	빈도	퍼센트
가정내 여가활동	295	43.3%
가정의 여가활동	387	56.7%
옥내활동	496	72.7%
옥외활동	186	27.3%
고소비적 여가활동	208	30.5%
저소비적 여가활동	474	69.5%
육체적 활동	152	22.3%
비육체적 활동	530	77.7%
취미 및 교양활동	176	25.8%
스포츠활동	125	18.3%
오락 및 교양활동	381	55.9%

4.3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4.3.1. 가족여가활동 동기

요인분석 결과 총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의 총분산은 65.712%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의 값은 0.729로 적당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선택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바르렛(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가 1718.072이며 유의확률값이 0.000으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2> 가족여가활동 동기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요인	측정항목	적재값	공통성	알파값	고유치	분산율
위신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869	.768	.7758	4.204	21.019
	사회적 체면, 권위 유지를 위해	.862	.767			
	타인이 권유하기 때문에	.696	.560			
	다른사람을 돕기 위해	.646	.569			
건강	신체운동을 위해	.847	.731	.6800	2.607	13.037
	건강유지를 위해	.817	.704			
	휴식을 위해	.629	.372			
	자연을 즐기기 위해	.606	.456			
즐거움 및 만족감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838	.731	.7206	1.933	9.663
	생활의 만족감을 위해	.836	.739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540	.551			
교육	가족과 함께 뭔가 배우기 위해	.802	.733	.7421	1.793	8.964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705	.712			
	새로운 경험을 위해	.590	.657			
가족관계	가족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위해	.859	.795	.6320	1.450	7.249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위해	.788	.630			
	가족이 여가활동을 원해서	.445	.488			
탈출	일상생활, 의무에서의 탈출을 위해	.857	.774	.7157	1.156	5.781
	일상생활의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841	.730			

4.3.2. 가족여가활동 제약요인

추출된 요인의 총분산은 62.239%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Meyer-Olkin)의 값은 0.701로 적당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선정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바르레트(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가 872.797이며, 유의확률값이 0.000으로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3> 가족여가제약요인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요인	측정항목	적재값	알파값	고유치	분산율
사회 구조적 제약	함께 참여할 만한 여가활동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794	.7441	2.354	18.106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붐비기 때문에	.730			
	여가시설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714			
	주변에 가족이 이용할 만한 여가시설이 없기 때문에	.694			

요인	측정항목	적재값	알파값	고유치	분산율
가족 구조적 제약	친지,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하므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828	.6785	2.170	16.692
	가족 중 어린아이나 노인이 있기 때문에	.686			
	여가시설사용료,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636			
	직장일, 가사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603			
인간 상호간 제약	각자 좋아하는 여가활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833	.6698	2.020	15.539
	여가활동을 각자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783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575			
인간 내적 제약	여가생활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828	.6720	1.581	12.164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것을 불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719			

4.4 가설검증결과

4.4.1. 가설 I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여가활동 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에 있어서는 던컨(Duncan)의 다중검정치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여가활동 동기 중에서 위신, 교육, 가족관계 요인에는 집단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건강, 즐거움 및 만족감, 일상생활 탈출요인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4>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여가활동 동기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요인	주기	신혼	자녀	자녀	자녀	자녀	F	자유도	유의 확률
		부부기	양육기	교육기	성년기	결혼기			
위신	평균값	2.07	1.99	2.11	2.25	1.99	1.120	4/249/253	.348
	Duncan test	a	a	a	a	a			
건강	평균값	4.07	3.76	3.58	3.68	3.88	3.712	4/248/252	.006***
	Duncan test	c	ab	a	ab	bc			
즐거움 및 만족감	평균값	3.25	3.45	3.25	3.17	2.75	4.701	4/249/253	.001***
	Duncan test	b	b	b	b	a			

요인	주기	신혼 부부기	자녀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성년기	자녀 결혼기	F	자유도	유의 확률
교육	평균값	3.68	3.47	3.64	3.69	3.68	1.427	4/249/253	.226
	Duncan test	a	a	a	a	a			
가족관계	평균값	3.62	3.63	3.58	3.34	3.60	1.261	4/249/253	.286
	Duncan test	a	a	a	a	a			
일상생활 탈출	평균값	3.88	3.82	3.49	3.50	3.17	4.335	4/249/253	.002***
	Duncan test	b	b	ab	ab	a			

1) **P<0.05 ***P<0.01

2) 자녀결혼기는 장·노년기와 은퇴기를 포함한 것임.

유의수준 0.01 이내에서 건강, 즐거움 및 만족감, 일상생활 탈출요인이 집단들 간에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었다.

건강 동기에 대해서는 신혼부부기 집단이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결혼기, 자녀양육기 집단이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 자녀양육기, 자녀성년기, 자녀결혼기 집단은 차이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만, 신혼부부기집단과 자녀교육기 집단은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즐거움 및 만족감 동기에 대해서는 자녀양육기 집단이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교육기와 신혼부부기 집단에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신혼부부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자녀성년기 집단은 차이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였지만, 자녀결혼기 집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일상생활 탈출 동기에 대해서는 신혼부부기 집단이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양육기와 자녀교육기 집단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자녀결혼기 집단과 신혼부부기, 자녀양육기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4.4.2. 가설 II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여가 제약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에 있어서는 던컨(Duncan)의 다중검정치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여가 제약요인 중 사회구조적 제약요인, 인간상호간 제약요인, 인간내적 제약요인에 집단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5>

유의수준 0.01 이내에서 사회구조적 제약요인과 인간상호간 제약이 집단들 간에 유의한 평

균차이가 있었고, 유의수준 0.05 이내에서는 인간내적 요인이 집단들 간에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었다.

사회구조적 제약요인에 대해서는 자녀결혼기와 자녀양육기에 속해있는 집단에서 평균값이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 신혼부부기, 자녀성년기, 자녀교육기 집단간에는 차이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만, 자녀양육기와 자녀결혼기 집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인간상호간 제약요인에 대해서는 자녀결혼기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성년기 집단의 평균값이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 자녀양육기, 신혼부부기, 자녀교육기 집단간에는 차이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만, 자녀성년기와 자녀결혼기 집단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내적 제약요인에 대해서는 자녀성년기에 속한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신혼부부기, 자녀결혼기 집단의 평균값이 높았다. 사후검정 결과, 자녀교육기, 자녀양육기 집단과 자녀성년기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표 4-5> 가족생활주기와 제약요인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제약요인		주기	신혼 부부기	자녀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성년기	자녀 결혼기	F	자유도	유의 확률
사회구조적 제약요인	평균값		2.33	2.83	2.49	2.36	2.92	5.420	4/249/253	.000***
	Duncan test		a	b	a	a	b			
가족구조적 제약요인	평균값		2.58	2.73	2.57	2.67	2.55	.690	4/249/253	.600
	Duncan test		a	a	a	a	a			
인간상호간 제약요인	평균값		2.40	2.11	2.41	3.04	3.34	19.073	4/249/253	.000***
	Duncan test		a	a	a	b	b			
인간내적 제약요인	평균값		2.22	1.96	1.92	2.32	2.09	3.063	4/249/253	.017**
	Duncan test		ab	a	a	b	ab			

1) *P<0.1 **P<0.05 ***P<0.01

2) 자녀결혼기는 장·노년기와 은퇴기를 포함한 것임.

4.4.3. 가설 III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라 가족여가활동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여가활동 유형을 5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가족여가활동 유형을 그라지아의 이원적 차원에서 구분하여 가정내적 여가활동과 가정외적 여가활동으로 분류했을 경우의 결과는 <표 4-6>과 같다. 신혼부부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자녀성년기에서는 모두 가정외적 여가활동의 비율이 높았고, 자녀결혼기에서는 가정내적 여가활동의 비율이 높았다.

가정내적 여가활동에 있어서 자녀양육기 단계가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자녀교육기, 자녀성년기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외적 여가활동의 경우 자녀교육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녀양육기, 자녀성년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해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정내적 여가활동과 가정외적 여가활동이 0.044 수준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교차분석(1)

주기 활동	신혼 부부기	자녀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성년기	자녀 결혼기	전체	X ²	df	p
가정내적 여가활동	32 (10.8%)	96 (32.5%)	77 (26.1%)	53 (18.0%)	37 (12.55%)	295 (100%)	9.79	4	.044**
가정외적 여가활동	51 (13.2%)	99 (25.6%)	134 (34.6%)	69 (17.8%)	34 (8.8%)	387 (100%)			

1) *P<0.1 **P<0.05 ***P<0.01

2) 자녀결혼기는 장·노년기와 은퇴기를 포함한 것임.

두 번째로 가족여가활동 유형을 로치의 이원적 차원에서 구분하여 고소비적 여가활동과 저소비적 여가활동으로 분류했을 경우, 결과는 <표 4-7>과 같다.

자녀교육기 단계에서 고소비적 여가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자녀양육기, 자녀성년기, 신혼부부기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비적 여가활동은 자녀양육기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녀교육기, 자녀성년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해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이 0.001 수준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여가활동에 대한교차분석(2)

주기 활동	신혼 부부기	자녀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성년기	자녀 결혼기	전체	X ²	df	p
고소비적 여가활동	36 (17.3%)	49 (23.6%)	75 (36.1%)	37 (17.8%)	11 (5.3%)	208 (100%)	19.22	4	.001***
저소비적 여가활동	47 (9.9%)	146 (30.8%)	136 (28.7%)	85 (17.9%)	60 (12.7%)	474 (100%)			

1) *P<0.1 **P<0.05 ***P<0.01

2) 자녀결혼기는 장·노년기와 은퇴기를 포함한 것임.

세 번째로 가족여가활동 유형을 교통개발연구원의 여가이용행태를 기준으로 하여 취미 및 교양활동, 스포츠활동, 오락 및 교양활동으로 분류했을 경우 결과는 <표 4-8>과 같다.

취미 및 교양활동은 자녀양육기와 자녀교육기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스포츠활동은 자녀 교육기가 전체의 44.8%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자녀성년기, 자녀양육기 순으로 나타났고, 신혼부부기와 자녀결혼기에서는 동일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오락 및 교양활동에 있어서는 자녀양육기와 자녀교육기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성년기, 자녀결혼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해서 가족 생활주기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이 0.000 수준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8>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교차분석(3)

주기 활동	신혼 부부기	자녀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성년기	자녀 결혼기	전체	X ²	df	p
취미 및 교양활동	33 (18.8%)	53 (30.1%)	50 (28.4%)	28 (15.9%)	12 (6.8%)	176 (100%)	34.51	8	.000***
스포츠 활동	13 (10.4%)	17 (13.6%)	56 (44.8%)	26 (20.8%)	13 (10.4%)	125 (100%)			
오락 및 교양활동	37 (9.7%)	125 (32.8%)	105 (27.6%)	68 (17.8%)	46 (12.1%)	381 (100%)			

1) *P<0.1 **P<0.05 ***P<0.01

2) 자녀결혼기는 장·노년기와 은퇴기를 포함한 것임.

네 번째로 가족여가활동 유형을 로취의 이원적 차원에서 구분하여 육체적활동과 비육체적활동으로 분류했을 경우의 결과는 <표 4-9>와 같다. 모든 주기에서 비육체적활동의 비율이 가장 높다. 육체적 활동에 있어서 자녀교육기 단계가 전 단계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자녀양육기, 자녀성년기, 자녀결혼기, 신혼부부기 순으로 나타났다. 비육체적활동의 경우는 자녀양육기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교육기, 자녀성년기, 신혼부부기, 자녀결혼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해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육체적활동과 비육체적활동이 0.097 수준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9>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교차분석(4)

주기 활동	신혼 부부기	자녀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성년기	자녀 결혼기	전체	X ²	df	p
육체적활동	13 (8.6%)	38 (25.0%)	60 (39.5%)	27 (17.8%)	14 (9.2%)	152 (100%)	7.86	4	.097*
비육체적 활동	70 (13.2%)	157 (29.6%)	151 (28.5%)	95 (17.9%)	57 (10.8%)	530 (100%)			

1) *P<0.1 **P<0.05 ***P<0.01

2) 자녀결혼기는 장·노년기와 은퇴기를 포함한 것임.

다섯 번째로 가족여가활동유형을 그라지아의 이원적 차원에서 구분하여 옥내활동과 옥외활동으로 분류했을 경우의 결과는 <표 4-10>과 같다. 모든 단계에서 옥내활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옥내활동에 있어서 자녀교육기와 자녀양육기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자녀성년기, 신혼부부기, 자녀결혼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옥외활동의 경우는 자녀교육기 단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녀양육기, 자녀성년기, 신혼부부기, 자녀결혼기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0>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교차분석(5)

주기 활동	신혼 부부기	자녀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성년기	자녀 결혼기	전체	X ²	df	p
옥내활동	63 (12.7%)	139 (28.0%)	149 (30.05%)	91 (18.3%)	54 (10.9%)	496 (100%)	1.712	4	.789
옥외활동	20 (10.8%)	56 (30.1%)	62 (33.3%)	31 (16.7%)	17 (9.1%)	186 (100%)			

1) *P<0.1 **P<0.05 ***P<0.01

2) 자녀결혼기는 장·노년기와 은퇴기를 포함한 것임.

V. 결 론

매스레저(mass leisure)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현대인은 여가생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가족구조가 핵가족으로 변화함에 따라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은 오락 및 휴식의 기능 외에도 가족의 이해와 행복을 증가시키고, 소속감과 일체감을 증가시키며, 가족 구성원 개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족생활주기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가계의 소득, 소비, 저축 유형 및 관광행동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여가행동과 가족생활주기를 관련시킨 연구는 현재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여가행동 중에서도 최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라는 인구통계적 변수를 중심으로 각 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여가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선행연구를 검토해서 가설을 설정하였고, 가설을 검증할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여가활동 참여가 다양하지 않고, 옥내 지향적이고, 동적인 활동보다는 정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비용이 적게 들고, 여가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교육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가활동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구성원들의 여가시간과 근로시간의 적절한 조화와 경제적 여유가 선행되어야 하겠고, 보다 높은 수준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여가활동에 대한 기술습득 및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이 여가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사회구조적 제약요인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제약들은 가족단위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용이나 지속적인 참여에 부담이 없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증가하는 가족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여가행동에 관련된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대상을 가족구성원 전체로 하지 않고,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여성에 국한시켰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족여가행동의 내용적 범위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가활동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상생활을 벗어난 여가관광까지 포함해서 내용적 범위를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세권 외(1994) 「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 세명문화사.
- 김광득(2000) 「여가와 현대사회」, 백산출판사.
- 손해식 외(2000), 「여가사회와 관광」, 백산출판사.
- 안중수(1993) “도시가족의 여가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 18권 제 2 호, p.204.
- 유영주(1984) “한국 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 권 제 1호, p.113-116.
- 이영분 외(1986),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응”, 「한국가족복지학」, 제 3 호 저축추진중앙위원회, “한국인의 생활의식조사 :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서울. p.124.
- 이인정·최해경 공저(200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나남출판사.
- 최병용(1996) 「최신 소비자행동론」, 박영사.
- 표영희(1996)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과 여가제약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p.4.
- Fodness, D., “*Measuring Tourist Motiv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4, No. 4, 1979, pp.410-411.
- Godbey, G. and Crawford, D., “*Nature and Process of Leisure Constraints : An Empirical Test*”, *Leisure Sciences*, Vol.15, 1993, p.99.
- Jennifer Mactavish et al, “*Patterns of family recreation in families that include children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First Quarter, 1997, p.22.
- Lansing, J. B. and Kish, L., “*Family Life Cycl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2, No.5, 1957, pp.512-519.

Orthner, D. K and Mancini, J. A., "*Leisure Impacts on Family Interaction and Cohes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22, 1990, pp.126-129.

Schuzaz, D. A., *The Changing Family Its Function and Future*, 3rd ed., Prentice-Hall, Inc., 1982.

Raymore, L., Godbey, G., and Crawford, D., "*Self-esteem,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 Their relation to perceptions of constraint of leisure among adolescents*" , Journal of Leisure Research, Second Quarter 1994, p.1.

Susan, M. S., "*Controversies and contradictions in family leisure : An analysis if conflicting paradigms*" , Journal of Leisure Research, First Quarter, 1997, pp.99-101.